

황야의 모래알

유은순(독립기획자)

최은철의 작품론을 쓰기로 하고 작품과 재료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설탕’이라는 재료에 얽힌 복합적인 맥락이 생각보다도 더 작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탕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 제국주의, 플랜테이션, 설탕세에서부터 Sugar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스크리트어로 ‘모래알’을 의미하는 사르카라(sarkara)라는¹⁾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해보면 최은철의 작업에서 설탕이라는 재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설탕도시>(2015)를 처음 시도할 때 작가는 자신이 살았던 두 도시, 서울과 쾰른을 황으로 잊고자 했다. 작가는 도시를 재현하기 위해 각설탕을 모듈로 삼아 짬아 올렸다.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아시아의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된 서울과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공격을 받아 95%이상 파괴된 후 재건된 도시 쾰른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강과 라인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라는 점, 산업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시드니 민츠는 설탕과 권력에서 쓴맛과 단맛에 관하여 흥미로운 지적을 한 바 있다. 쓴 물질은 “구체적인 쓴맛”을 내는 반면 단맛은 “일반적인 단맛”을 낸다는 것이다. 고로 설탕을 커피, 카카오, 차 등 쓴 물질에 첨가하면 “설탕은 그 물질들을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도록 만든다.”²⁾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구절이 묘하게 떠오른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³⁾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쓴맛과 단맛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엇비슷하지만, 갈등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이유로 발생한다.

작가는 <설탕도시>를 위한 작업 노트에서 도시를 상징하는 높은 빌딩과 스카이라인이 “편의와 실용을 기초로 한 물질적으로는 산뜻한” 이미지와 “건조한” 이미지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단맛이 나지만 건강에는 유해하다는 양면성을 가진 설탕에 비유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설탕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요한 상품이다. 원래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의 원산지는 뉴기니였으나, 인도, 이라크, 이집트를 경유하여 7세기경 지중해에 전파되었으며 처음에는 (근거가 없이) 위장약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 14세기에 이집트와 북이탈리아에서 페스트가 유행할 때, 이집트에서 사탕이 강인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 여겨져 사탕수수 재배가 확산되었다.⁴⁾ 16세기 말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개척과 맞물려 사탕수수 재배가 확산되었고 17세기 카리브해의 섬들이 생산 중심지가 되면서 설탕 재배가 플랜테이션화되었다.⁵⁾

한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노동자는 ‘단맛’을 원한다. 설탕은 처음에 귀족의 사치품으로 시작되었으나 생산량이 증가하고 산업화됨으로써 노동자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했다.⁶⁾ 설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칼로리를 섭

1) 미야자키 마사카츠, 『물건으로 읽는 세계사』, 박현아 옮김, 현대지성, 2018, 대교류를 방불케 하는 아랍어 기원의 단어들, 교보ebook.

2) 시드니 민츠, 『설탕과 권력』, 김문호 옮김, 지호, 1998, pp. 216-217.

3)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이철 옮김, 범우사, 2000, p. 11.

4) 미야자키 마사카츠, 같은 책.

5) 광문환, 「18세기 설탕산업, 노예무역 그리고 영국 자본주의」, 『史林』 제22호, 2004, p.148.

6) 시드니 민츠는 설탕 플랜테이션을 “산업”이라고 일컫는다. 사탕수수 재배 이후에 고도화된 기술로 설탕

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노동자 사회에 안착했다. 마이클 모스의 『음식중독』에 따르면 설탕이 뇌를 자극하는 속도는 0.6초로,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마약이나 담배 속도를 능가한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된 체계는 사냥이나 채집을 해왔던 고대부터 농사를 근간으로 한 중세의 생활 리듬을 파괴하고 기계적인 속도에 인간의 리듬을 강제로 맞추도록 만든다. 파괴된 삶의 리듬을 손쉽게 회복하기 위하여 고도로 정제된 ‘당’을 마치 합법적인 마약처럼 활용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설탕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600년 영국에서 연간 설탕 소비량은 400~500g이었지만 17세기에는 2kg, 18세기에는 7kg으로 급증했다.⁷⁾ 현대인은 연간 1인당 24kg의 설탕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당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탕 업계가 벌인 로비도 한몫 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식품 라벨에 하루 권장량 퍼센티지를 기재하는 난에 설탕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제당업계는 심장질환의 원인을 지방으로 돌리는 논문을 투고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⁸⁾ 최근에는 설탕의 대체감미료에 대한 위험성을 발표하는 논문도 미국 제당업계가 손 쓴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앞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단맛’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과연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한 것이었을까? 국가와 기업의 정교한 정책과 연구를 체계화한 결과, 석유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연료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Foliated Rocks>(2022)와 <Polar Substances>(2017)는 시멘트 위에 설탕을 녹여 초코케이크같이 겹겹이 쌓인 단면을 보여주는 설치 작업이다. 마천루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재료인 시멘트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호품인 설탕은 이 시대의 역사를 담지한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설탕도시>가 지면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도시의 형상을 보여준다면, 두 작업은 먼 훗날 자본주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 - 심지어 북극을 포함하여 - 의 지면 아래에 썩어 썩어 쌓인 (과거가 된) 자본주의의 욕망을 상상한다.

2023년 개인전 《황야로 도주》에서 작가는 사하라 사막에서만 난다는 희귀한 검은색 모래더미 사이로 점토로 만든 유물과 설탕으로 만든 유물을 병치하여 설치하였다. 설탕으로 만든 유물인 <흘러내리는 유물들>(2023)은 설탕을 녹여서 틀에 넣어 굳힌 작업으로, 습기나 온도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번 전시는 뜨거웠던 지난 8월 중순부터 준비했고 전시가 시작되기도 전, 설치한 지 단 며칠 새에 바스라지거나 녹기 시작했다. 몇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유물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현되었다. <Foliated Rocks>가 지층의 형상 자체로 시간성을 가시화한다면 <흘러내리는 유물들>은 전시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동적인 상태로 시간성을 가시화한다.

여기서 설탕은 각설탕이나 모래알 같은 고체의 상태로서 쌓여 있지 않고, 액체로 녹였다가 다시 연약하게 굳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설탕은 애초에 즙의 형태로 얻어진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난 후 수수 섬유질을 분쇄하고 갈아서 액체 내용물을 얻고, 다시 수액을 끓이고 더 껍질을 걷어내고 졸이는 과정을 거친다.⁹⁾ 끈적끈적한 당밀이 만들어지면 이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결정화한다.

당을 공정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생산과 소비의 분리, 노동자와 생산도구의 분리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서이다. 설탕을 생산한 것은 흑인 노예이지만, 유럽에서 소비되며 노예는 24시간 밤낮없이 교대로 일을 했다.

7) 미야자키 마사카츠, 같은 책.

8) “심장질환은 설탕이 아니라 지방 탓?” 미 설탕업계가 연구로비’, KBS뉴스, 2016.9.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345931> (접속일: 2023. 9. 14.).

9) 광문환, 같은 글, p.148.

그러므로 결정화된 설탕을 다시 녹이는 행위는 설탕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체로 만들기 위해 투입된 기술과 강도 높은 노동, 설탕에 담긴 자본주의적 욕망 일체를 무화키는 것과 같다. 최은철은 설탕을 녹인 후 다시 성형을 하는 과정을 작업에 활용할 때 <설탕도시>와 같이 현재라는 시간 축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지층, 유물, 유적지와 같이 현대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단절된 과거의 대상에 활용한다. 이는 최은철만의 새로운 메멘토 모리이다. 현대 사회의 지표가 되는 설탕을 재료로 삼음으로써 겉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주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주제와 재료는 작업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최은철은 자신의 작업을 비단 설탕에만 국한 시키는 것은 아니다. <황야의 Wanted>(2022-)는 고대의 유적, 유물 이미지와 근현대에 생산된 건물, 공사 장소, 오브제를 포토콜라주 한 작업이다. 가장 최근에 생산된 것들조차도 미래에는 유적과 유물이 될 것이라는 필멸성을 서로 다른 시간에 형성된 두 개의 오브제를 병치시켜 보여준다. 다른 작업에서는 고전적인 오브제와 근현대적 재료인 설탕을 결합하여 긴장을 내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작업에서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결합으로 긴장을 외적으로 드러낸다.

어쩌면 작업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설탕이라는 재료가 보여주는 양면성과 더불어 작품 안에서 서로 다른 오브제 간의 병치와 파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최은철의 작업을 계속해서 보게끔 만드는 힘일 것이다.